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의 음악 구성 요소 분석: 일본 조선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김수진* · 안병삼**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일본 조선학교 개관
3.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 구성 요소 분석
4. 맺음말

* 제1저자, 삼육대학교 음악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삼육대학교 중국어학과 조교수

<Abstract>

A Study on the Musical Elements Analysis of Chosun School's School Song in Japan

Kim, Sujin and An, Byungsam

As of 2019, more than 7.5 million Koreans have immig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other countries. Among them, about 600 thousand Koreans live in Japan, while 14 Chosun Schools are open there for an ethnic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forms, the ternary form is used most or in 11 school songs. In terms of the number of bars, 11 school songs use the structure of 24 bars. In terms of the verses, 13 school songs use the Strophenlied. The tempos are indicated in 7 school songs. The school songs indicated with a tempo sound like a march, using such adverbs matching the school songs as proudly, gallantly, etc. 10 school songs indicate composer and writer, while 4 school songs do not. 9 school songs show a discrepancy between rhythm and lyric; even from the beginning or in the middle, the bars are incomplete, causing the dynamics of beat and the intonation of the lyric to be incongruent, making the message of the lyric weak. The school songs with the notes matching the number of the syllables are 8. In case of other 6 songs, the number of the syllables of the lyrics is larger or smaller than the number of the notes. The errors of the scores are diverse; the wrong notes are used to confuse the number of the beats; 11 school songs do not use the mark '-'; the lyrics are not clear in case the number of notes does not match that of the

syllables. Besides, 12 school songs do not indicate the breathing marks separately, and the same number of the school songs fills the number of the beats with the notes to render a feeling of being trapped.

Key Wo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Chosun School, school song, music forms, rhythm and lyric

I. 말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들은 2019년 현재 75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¹⁾ 그들은 5대양 6대주 지구촌 곳곳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민의 터전을 일구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교육을 중시하여 학교를 세우거나 가정에서 민족교육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그랬고, 중국의 조선족도 그러하였다. 일본의 재일동포들도²⁾ 마찬가지였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였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1세대 동포들이 일본

1) 재외동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해외 동포는 193개국에 7,493,587명이다.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2,546,982명이고, 두 번째가 중국으로 2,461,386명이다. 세 번째가 일본으로 824,977명이다. 일본의 경우, 영주권자가 361,351명, 일반체류자가 71,058명, 유학생이 17,050명, 외국국적(시민권자)이 375,518명이다. http://www.korean.net/portal/info/pg_knt_major_area.do(검색일: 2020년 1월 21일)

2) 독립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그 자손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라고 한다. 일본 내에서는 재일조선인, 자이니치라고도 부른다. 재일동포 단체는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약칭 민단, 한국 정부와 협력관계이지만 한국 정부에서 독립된 단체이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북한 정부 산하에 있다)이다.

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민족 어린이들이 일본학교를 다녔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한탄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1세대 재일동포들이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갈 어린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국어강습소’였다.³⁾ 이곳에서 한민족 아이들은 우리글과 우리말을 배우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훗날 일본의 조선학교로 발전하여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가란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한민족의 사회적·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족학교의 교육정신이나 목표, 그리고 특성 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흔히 교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애교심을 길러주고, 동시에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학교가 특별히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노래이다(안병삼, 2011:370). 실제적으로도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는 현지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교가들이 학교에서 교육되어지고 있었다.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에서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이 따라 민족의식 고취, 독립정신 배양, 사회주의 찬양, 중화주의 선전 등이 표현되었고,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도 민족단결 강조, 김일성 찬양, 미제타도 등의 요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교가에는 이러한 가사에 맞춰 음악적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여 가사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였다.

국내·외에서 일본 조선학교를 포함한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3) 민족학교는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학교(민단 및 한국과 관련)와 조선학교(총련 경영)로 분리되어 있으며, 한일관계, 북일관계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민족학교의 형성 과정에서 일본학교 내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민족학급이 탄생하여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국제학교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등장했고, 주말한글학교 등의 사회교육도 여러 형태를 띠며 증가하고 있다(정진성, 2017: 209).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 이러한 원인의 가장 주된 요인은 그동안 국내·외의 연구자들의 해외 한민족학교 학교 자체에 대한 관심 부족과 현지 학교 관계자들의 ‘학교문화’ 자료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⁵⁾ 그 결과 해외 한민족학교가 학생수 부족 등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이 사라져갔다. 최근 들어 ‘학교문화’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몇몇 학자들이 그 자료들을 수집하려고 하지만 넓은 연구지역을 감안하면 많은 경비가 필요한 작업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의 학교가 홈페이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가의 수집과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의 전공이 음악과는 거리가 있어 지금까지는 음악적 분석보다는 교가 가사 내용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 유산 자원의 보존과 연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해외 한민족학교의 문화 유산 자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져서 후세 연구자들은 연구할 수도 없다. 한민족 문화 연구 영역의 확장이라는 시각에서도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 곳곳의 한민족 문화 영역을 연구하는 작업은 한민족 문화의 세계화이며 문화 영토의 주체적 관리인 것이다.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이고, 일본 조선학교 교가나 구소련지역의 고려인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 상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기존의 해외 한민

4) 국내 학교의 교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이러한 자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은 학교문화 자료를 수집하려고 학교에 가면 “이런 것을 왜 수집하는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등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족학교 교가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 교가 가사에 집중되어있고, 가사 내용 이외의 교가의 형태와 구조 분석, 교가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 분석 등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항일 및 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교가를 한 부분으로 다루다가 최근에 와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에 등장한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길태숙(2008)의 논문은 항일투쟁노래와 관련하여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다루었다. 그의 논문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에서는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를 중심으로 그 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항일투쟁노래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그 주제를 논하면서 그 구체적 사례로 신흥무관학교 교가에 나타난 항일투쟁노래의 특징과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민족정체성을 이 교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 안병삼은 중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학교 '학교문화'를 다루면서 거의 모든 조선족학교 교가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안병삼, 2011, 2012, 2013, 2014, 2018). 그는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학교 교가를 각각 길림성·흑룡강성·요녕성으로 나누어 교가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작사가·작곡가 분류와 그 특징, 교가 가사의 시기별 내용 분석, 교가에 대한 현재의 학교 교육과 학생 인식 고찰 등 지금까지 가장 다양한 시각으로 교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교가 수집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중국 현지 학교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현존학교 교가는 물론 폐교학교 교가까지 수집하였다는 점이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로는 임영언·김태영(2017)의 「제일코리아 민족학교의 성장요인과 학교문화로서 교가 고찰」

이 있다. 이 연구는 재일동포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조선학교의 성장 과정에서 학교문화로서 '교가'의 출현과정과 한국학교와 조선학교에서 창작된 교가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교가 내용을 위해 사용한 교가는 가와사키(川崎) 사쿠라모토(櫻本) 소학교의 교가, 사이다마(埼玉) 조선학교 교가, 도쿄(東京) 한국학교 교가 등 3개 교가이다. 논문에서 말한 민족학교 교가의 내용 차이는 한국 학교의 교가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기상, 재일동포의 역사성과 위치, 민족정체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선학교의 교가에서는 처음에는 재일코리안의 동화와 민족차별이라는 측면에서 투쟁과 저항의 정신을 담고 있었지만 1980년대 글로벌화 이후 세대교체와 더불어 재일2세-3세의 정주화, 학생수의 감소라는 시대상을 반영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일본에서의 조선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김리화(金理花)가 있는데, 그녀는 조선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와 조선학교 교가 창작과 등장 배경에 대해 역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리화(2015)는 자신의 논문 「故郷としての朝鮮學校—朝鮮學校の音楽教育に關する一考察」에서 조선학교에서 교가가 등장한 배경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시기는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대 전반까지 창작된 교가로 가와사키(川崎) 조선초급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제2시기는 1955년 조선 총련 결성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선학교가 설립된 시기로 학교설립의 준공을 계기로 만들어진 교가이다. 제3시기는 1980년대 이후로 당시까지 교가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잊혀진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교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외에 안병삼과 임영언의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와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 비교 연구가 있다. 안병삼·임영언(2018)의 논문 「해외 한민족학교의 교가 비교 연구—중국 조선족학교와 일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에서는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와 일본 조선학교 교가 가사 내용에 존재하는 동이점(同異點)을 발견하여 그 특징

등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다. 다만 이 연구 역시 교가의 가사 내용에만 집중하여 연구했을뿐 교가의 음악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위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전 세계의 한민족학교는 민족공동체의 붕괴와 학생 수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급증하였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교가들도 사라져갔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일본 조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이후 한때 일본 전역에 600여개의 조선학교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60여개의 학교만이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⁶⁾

민족교육 이념과 민족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이지만 향후 다양하게 확대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본 논문은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 연구를 통해 한반도를 벗어난 문화 영토와 학문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의 가사 내용 중심의 연구를 벗어나 새롭게 음악적 요소 분석을 시도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출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일본 조선학교에서 수집한 교가 50개 중 악보가 있는 교가 14개이다.⁷⁾

6) 일본 내 민족학교는 총련계 조선학교와 민단체 한국학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총련계 조선학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민단체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일본 내 4곳이 있으며, 교가 대부분이 한국 내 학교의 교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7)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이전에 저자와 함께 교가 연구 작업을 한 연구자가 2010년대에 일본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그는 수차례 일본 조선학교의 방문과 지인을 통하여 일본 조선학교 교가 50여개를 수집하였고 그중 악보가 있는 것이 14개였다.

II. 일본 조선학교 개관

1945년 8월, 식민지 지배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한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해방과 동시에 대부분은 한반도로 돌아갔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 집거지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사실상 재일동포 1세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1세대 자녀들은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우리말·우리글에 익숙하지 못하여 일본어를 사용하는 한편 민족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을 본 재일동포 1세대들은 아이들이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데 조국말을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으로 조선어를 잊지 않고 언어소통 능력을 키워주고자 전국에 세운 것이 ‘국어강습소’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 존재하는 최초의 조선학교는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재일동포 1세대 자녀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한 공간으로서 ‘국어강습소’라는 형태로 일본 각지에서 개교한 것이다(朴三石, 2011: 1-4). 해방 이전에는 일본 각지에 조선어를 가르치는 자주적인 민족교육기관이 존재했는데 야간학교의 형태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자율학습형 민족학교였다(小澤有作, 1973: 302-305).

당시 광범위한 재일동포들이 소속한 민족단체였던 재일본조선인련맹은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생겨난 국어강습소를 통합하고 정비해 학교로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배지원·조경희, 2017: 23). 해방 이후 당시 학교체제의 구분이 모호했던 조선학교는 1947년 10월 학교체제로 전환되면서 1948년 해방 직후 (총련계)민족학교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소학교는 541개교에 교사수 1,196명,

학생 56,210명이었고, 중학교는 9개교에 교사수 25명, 학생 2,330명이었고, 청년학교는 36개교에 교사수 140명, 학생 1,796명이었다. 이를 합하면, 학교수는 586개교, 교사수는 1361명, 학생수는 60,336명이었다(임영언·김태영, 2017: 218). 그러나 이후 일본정부와 미군정은 조선학교가 공산주의자를 양성한다는 미명 하에 1948년 4월에 발생한 ‘한신교육투쟁’을 계기로 1948년 10월에는 조선학교 92개교에 대하여 폐쇄통고를 했고 나머지 260개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신청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1949년 11월에는 조선학교 총 349개교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49년 10월과 11월에 단행된 두 번의 조선학교 폐쇄조치로 결국 조선학교 전체에 대한 폐쇄조치가 단행되어 1952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55년 총련의 결성으로 조선학교가 각종 학교로 인가될 때까지 조선학교는 민족학급 형태로 유지되었다(임영언 외, 2018: 1-24).

이후 재일동포의 국적문제까지 야기되면서 조선학교는 무인가 학교인 자주학교, 공립학교, 민족학급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그 명맥을 이어갔다. 1952년,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조선학교의 모양새를 유지한 자주학교 형태는 효고, 아이치, 히로시마 등 44개교가 존재하였다. 조선인학교가 일본 공립학교 또는 그 분교로써 인가된 공립학교 형태는 도립 조선인학교 14개교, 기타 공립 분교는 19개교가 운영되었다. 일본인학교 안에 정식으로 조선인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된 것은 전국에 77개 학급이었고, 과외시간만 민족학급이 따로 구성된 경우는 이바라키 11개 학급, 교토 8개 학급 등 이었다(배지원·조경희, 2017: 94).

1960년대 중반의 문부성은 재일동포만을 수용하는 공립학교의 운영을 계속적으로 부정하였고, 조선학교에 대해 각종 학교인가를 내리지 않는 등 매우 강압적인 조선학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968년 4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도쿄도의 미노배(美濃部) 도지사의 혁신 도정이 조선학교 체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조선

대학교를 인가하였는데, 이것이 전국 각지에서 인가 취득에 큰 영향을 주어 1975년까지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학교 인가를 취득하게 되었다(오자와 유사쿠, 1999: 466). 즉 인가를 받은 학교는 1965년에 11개교, 1966년 39개교, 1967년 29개교, 1968년 8개교, 1969년에는 4개교, 1970년에는 10개교에 달하였다. 결국 일본정부가 조선인 학교에 집중 공격을 한 5년 사이인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101개교가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1971년 159개의 조선학교 중 3분의 2에 해당된다. 그 이전 10년간(1955년~1964년)에 인가를 받은 학교 수가 총 45개교였음을 고려하면 얼마나 크게 급증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971년에도 12개 학교는 아직도 미인가학교로 남아있었다(오자와 유사쿠, 1999: 466-447).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 조선학교의 소학교는 197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1972년에는 급감하였다. 그러나 중학교는 197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1972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1970년에 감소하다가 1972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학교의 학생 수가 1970년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1968년부터 발생한 조선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집단폭행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결론적으로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1967년에 34,5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81년에는 22,940명으로 줄어들었고, 1980년대 말에는 2만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조선학교 학생수는 계속해서 1990년대에는 17,000명 수준에서 2016년 102개 학교에 1만명 이하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임영언·김태영, 2017: 219-220). 2019년 현재 조선학교는 60여개 학교에 5,0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⁸⁾

8) 제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엔 무상화 정책이 유아교육·보육 시설로 확대된 가운데 조선학교 유치부 시설이 제외되면서 조선학교 이탈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2월 31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를 인용해 조선학교(대학 제외) 학생 수가 올해

조선학교가 일본사회에 급격히 감소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현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재일동포 귀화자 증가와 일본인과의 결혼에 의한 일본국적 취득자 증가, 재일동포사회의 민족 정체성의 약화에 따른 결속약화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조선학교의 감소원인은 북한으로부터의 교육원조비 지원의 중단과 감소, 재일동포들의 교육비 가중으로 자녀들의 일본학교 선택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학생 수 감소는 조선학교가 교육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60여 개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5,000여 명뿐이다. 비록 조선학교가 민족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의 학생을 받고는 있지만 북한 국적 동포 위주로 구성된 조선학교가 일본 내 겨우 3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서 아직도 60개가 넘는 조선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III.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음악 구성 요소 분석

본 연구는 일본의 조선학교 교가를 분석하여 교가의 음악적 요소들의 사용에 대한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조선학교에서는

5월 현재 5,223명으로 2009년(8,323명)과 비교해 37.3%(3,100명)나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휴교 등으로 2009년 76곳에서 64곳으로 주는 등 조선학교 통폐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학교 전체(대학 제외)로 연간 300명가량 감소하는 추세여서 2020년 중 조선학교 학생이 5,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VSAD1OHSV>, 검색일: 2020년 1월 20일).

한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민족의 음악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조선학교는 교육과정(2003) 개편의 중점 사항에서 다시 민족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국어, 조선 역사, 지리, 사회, 음악, 미술 등 민족성을 키우는 과목을 충실히 하고.....” 한민족 학교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교과를 통해 민족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양종모, 2019: 189). 일반적으로 교가는 음악 시간에 가르친다.

음악 구성 요소 분석에서 형식적인 면으로는 가요형식과 마디수, 가사 형식 등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이외에도 빠르기 분류, 작사·작곡가 현황, 리듬과 가사의 일치성,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음악 구성 요소 분석

분석 기준		세부 내용
형식	가요형식	한도막, 두도막, 세도막형식 또는 변형된 형식
	마디수	교가의 길이
	가사형식	후렴여부, 통절형식, 유절형식
빠르기 분류	빠르기말 표기	빠르기말 사용여부, 부사적 표현여부
작사·작곡가 현황	작사·작곡자	작사·작곡가의 현황
리듬과 가사의 일치성	리듬·가사의 조화	리듬의 맥박과 가사의 억양 일치 여부, 가사의 내용과 리듬 일치여부, 음표의 수와 가사의 음절수 일치 여부
기타	악보의 오류	리듬이나 가사 표기 오류

1. 형식

악곡의 구조는 음악의 뼈대와도 같은 것이다. 뼈대에서 시작하여 음악이 완성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구조는 중요한 틀이 된다. 흔히 악곡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동기’라 하고 보통 2

마디를 일컫는다. 동기가 2개 모여서 4마디가 되면 ‘작은 악절’이라고 하고, 작은 악절 2개가 모여서 8마디가 되면 ‘큰 악절’ 또는 ‘한도막 형식’이라고 한다. 구조적인 면을 ‘가요 형식’과 ‘마디수’, ‘가사 형식’에 기준하여 분류해보고자 한다.

1) 가요형식

가요의 형식은 ‘한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으로 나뉘는데 각각 ‘8마디’, ‘16마디’, ‘24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작은 세도막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작은 악절(4마디) 세 개로 구성되어 ‘12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큰악절인 8마디에서 이루어진 주제악상을 A라고 했을 때, 다음 큰악절인 8마디에서 뒤따라 나오는 주제가 완전히 반복되었으면 AA, 주제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서 반복되었다면 AA’, 완전히 다른 주제가 나왔다면 AB라고 표기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를 가요형식으로 구분해보면, 11개 조선학교 교가에서 ‘세도막 형식’을 사용하였고, 1개의 조선학교 교가에서 ‘두도막 형식’을, 2개의 조선학교 교가에서 변형된 형식을 사용하였다. ‘세도막 형식’을 사용한 11개 조선학교 교가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A-B-C의 형태가 9개로 가장 많았고, A-B-B’의 형태가 1개, A-A’-B의 형태가 1개였다. ‘두도막 형식’을 사용한 도쿄(東京)조선제9초급학교 교가에서는 A-B의 형태를 사용하였고, 변형된 형식을 사용한 도춘(東春)조선초급학교 교가에서는 A-B-C의 형태이지만 C가 4마디로 짧게 구성되어 있었다. 또 다른 변형된 형식을 사용한 조선대학교 교가에서는 A-A’-B-C의 ‘네도막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B부분이 마찬가지로 4마디의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 즐겨 사용하는 가요 형식은 ‘세도막 형식’의 A-B-C 형태 구성으로, 교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A의 첫 부분에서 학교의 이념과 강조하고 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였고, B부분에서 이러한 정신을 배우는 배움터로서의 학교를 표현하였고, C부분에서 학교명과 함께 후렴구를 배치하는 형식을 선호하였다.⁹⁾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세도막 형식인 A-B-C 형태 구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이나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와 비슷한 형식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 대부분은 A의 도입부에서는 학교의 위치를 드러내는 지명이나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등장하여 학교의 위치를 알리고자 하였고, B의 중간부분은 학교의 이념과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표현하였고, C의 끝부분에서는 학교명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뒤에 후렴구를 배치하였다(안병삼, 2013: 94).

<표 2> 가요 형식 분석¹⁰⁾

가요 형식	세부 형식	교가 수	학교명
세도막 형식	A-B-C	9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A-B-B'	1	홋카이도초중고
	A-A'-B	1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두도막 형식	A-B	1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9) 도쿄조선제2초급학교의 교가 1절을 보자.

백두의 슬기로운 정기를 이어 찬란한 민족문화 기상을 담아
 에다가와에 우뚝섰네 배움의 전당
 그 이름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후렴)

10) 본 논문에서는 일본 조선학교 명칭은 학교에서 사용한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변형된 형식	A-B-C(4마디)	1	도순조선초급학교
	A-A'-B(4마디) -C	1	조선대학교

2) 마디수

마디수는 ‘악보에서 세로줄로 구분되어 있는 악곡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모든 마디는 정해진 박자에 의해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2/4박자의 곡에서는 한 마디에 \downarrow (4분음표)가 2개 들어오면 세로줄을 그어 마디를 구분하고, 3/4박자의 곡에서는 한 마디에 \downarrow (4분음표)가 3개 들어오면 세로줄을 그어 마디를 구분한다. 단, 여린박으로 시작하는 못갖춘마디의 경우에는 그 마디와 끝 마디를 합해야 정해진 박자가 되기 때문에 못갖춘마디와 끝마디를 묶어서 한 마디로 계산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11개는 24마디로 구성되었고,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교가는 16마디, 도순조선초급학교 교가는 20마디, 조선대학교 교가는 28마디로 구성되었다.

<표 3> 마디수 분석

마디수	교가 수	학교명
24	11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홋카이도초중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16	1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20	1	도순조선초급학교
28	1	조선대학교

3) 가사형식

성악곡은 노래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가사가 매우 중요하다. 교가 역시 학교를 대표하는 노래로, 가사에는 학교이념은 물론 시대적·사회적 배경 등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어 가사의 형식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가사 형식을 예술가곡의 형식에 준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예술가곡은 시를 노랫말로 하여 곡을 붙인 성악곡으로, 가곡에는 그 나라 민족 정서와 예술성이 깊게 배여있다는 특징과 함께 독일의 리트, 프랑스의 멜로디, 이태리의 칸초네 등이 있다. 한국 가곡 역시 민족의 정서와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곡이다. 이러한 가곡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면에서 교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가곡은 가사와 선율의 구조에 따라 유절가곡과 통절 가곡으로 분류되는데, 유절 가곡은 가사의 각 절이 제1절의 같은 선율을 반복하여 부르는 형식으로 1절·2절·3절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반해, 통절 가곡은 각 절마다 내용이 다르고 선율 또한 다르게 붙는 것을 말하며 반복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부르는 곡을 말한다. 교가에서는 절이 나뉘어 있는 곡을 유절 형식으로, 한 절로 마치는 형태를 통절 형식으로 구분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를 분류해보면, 13개가 유절 형식, 1개가 통절 형식이다. 13개의 유절 형식은 다시 후렴이 있는 유절 형식과 후렴이 없는 유절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렴이 있는 유절 형식의 교가는 8개, 후렴이 없는 유절 형식의 교가는 2개, 구분이 모호한 교가는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이 모호한 교가 3개는 홋카이도(北海道)초중고 교가, 도순조선초급학교 교가, 교토(京都)조선중고급학교 교가로 그 모호함을 살펴보겠다.

우선, 홋카이도초중고 교가는 악보상 선율흐름의 도돌이표 및 지시된 표기에 의하면, 1마디부터 16마디까지 부르고 다시 1마디

로 돌아가 15마디까지 반복하고 17마디로 건너가 끝까지 노래하게 된다. 이는 1절과 2절이 같은 선율을 반복한다고 볼 수 없어 유절 형식이라고 구분하기 어렵고 오히려 통절 형식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에는 1절과 2절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보하여 유절 형식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에 어떤 가사 형식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도순조선초급학교 교가는 4절로 구성된 유절 형식인데 12마디 마지막 박자 가사인 ‘아--빛나라 우리의 배움-터 도-순 조-선 초-급학교 번-영-하여-라’가 도돌이표 및 지시된 표기에 의해 1·2·3절이 똑같이 반복되지만, 4절에 가서는 ‘영원히 빛나라 우리의 보금터 도순조선초급학교 번영하여라’로 가사가 바뀌어 후렴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4절의 마지막 4마디 멜로디가 바뀌게 됨으로 이 또한 1·2·3·4절이 같은 선율을 사용한다고 보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세 번째, 교토(京都)조선중고급학교 교가는 3절로 구성된 후렴 있는 유절 형식인데, 마지막 두 마디는 도돌이표 및 지시된 표기에 의해 1·2절이 똑같이 반복되지만, 3절에 가서는 멜로디가 바뀌어 1·2·3절이 같은 선율을 사용한다고 간주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유일한 통절 형식의 곡은 세이방(西播)조선초중급학교 교가에서 사용되었다.

<표 4> 가사 형식 분석

가사 형식		절	교가 수	학교명
유절 형식 (13)	후렴있는 유절 형식(8곡)	3절	5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2절	3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곡)	후렴없는 유절 형식(2곡)	3절	2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도쿄조선제9 초급학교
	후렴여부 모호한 유절 형식(3곡)	2절	1	혹가이도초중고
		3절	1	교또조선중고급학교
	4절	1	도순조선초급학교	
통절 형식(1곡)			1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2. 빠르기 분류

노래에 있어서 빠르기말은 곡 전체의 속도를 정해줌으로 그 속도에 따라 같은 음악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다. 빠르기의 규정은 메트로놈 박으로 제시될 수 있고 빠르기말이나 부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메트로놈 표기법은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템포를 정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M.M. ♩=60이라 표기되어 있으면 1분에 기본박인 ♩ (4분음표) 1박이 60번 분할되는 속도를 말한다.¹¹⁾ M.M. ♩=40-66(혹은 76)정도는 느린 속도를, M.M. ♩=66(혹은 76)-108(혹은 120)정도는 보통 빠르게, M.M. ♩=108(혹은 120)-200정도는 빠르게로 분류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중 메트로놈 박을 제시한 교가는 나고야조선초급학교 교가로 ♩=84의 표시와 함께 ‘따뜻하게’라는 부사어를 제시하여 보통 빠르기의 서정적인 교가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외 7개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는 빠르기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 중 혹가이도초중고 교가는 악곡의 흐름상 서정적인 보통 빠르기의 곡이라 볼 수 있으며, 나머지 6개 일본 조선학교 교가들은 빠르거나 보통 빠르기의 씩씩한 느낌의 곡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11) M.M은 메트로놈을 발명한 독일의 요한 멜첼의 이름을 따 ‘멜첼의 메트로놈’의 약자 표시이다.

특징 한 가지는 일본 조선학교 교가 7개에서 빠르기말 대신 각각 ‘자랑차게’, ‘행진곡으로’, ‘씩씩하게’, ‘행진조로’, ‘행진곡조로’, ‘따뜻하게’, ‘공지와 자랑안고 당당히’ 등 부사어를 사용하여 교가를 의도적으로 힘차고 씩씩한 행진곡조로 당당하게 부를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경쾌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고, 이 경쾌한 성격은 다시 교가 가사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교가에 나오는 북한과 수령, 태양 등의 개인숭배사상, 민족에 대한 자부심, 통일에 대한 희망 등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부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표 5> 빠르기말 분석

빠르기말		교가 수	학교명	
표시 (7곡)	메트로놈박	1	나고야조선초급학교 ¹²⁾	
	부사어 (7곡)	자랑차게	1	도순조선초급학교
		행진곡풍으로	3	고베조선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씩씩하게	1	교토조선중고급학교
		따뜻하게	1	나고야조선초급학교(메트로놈박 같이 사용)
		공지와 자랑안고 당당히	1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빠르기말 미표시		7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홋카이도초중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12) 나고야조선초급학교 교가는 메트로놈박과 빠르기말 부사어 ‘따뜻하게’를 동시에 사용하여 빠르기말 분석표 2곳에 들어가게 됨으로 총 교가 개수의 통계가

3. 작사 · 작곡가 현황

작사자는 학교의 교훈과 이념이 적절하게 잘 들어있고 애교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작사자를 통해 가사가 만들어지면 그 가사에 멜로디를 입혀 곡을 만드는 작곡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작곡가 역시 학교의 교육철학과 이념이 잘 배어나도록 하고, 작사자가 써놓은 가사에 어울리는 리듬형과 박자, 선율, 화성, 빠르기 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를 분석해보면, 작사자와 작곡자 모두 명시되어 있는 교가가 5개였다. 그 중 도쿄조선제9초급학교의 경우는 작사자와 작곡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고, 나고야조선초급학교 교가의 경우 작사자가 집체작으로 표기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순조선초급학교 교가의 경우 작사 박복의, 작곡 리문량 외에 70돛기념 가사작사 리철수, 편곡 최귀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가하면 작사자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교가의 경우가 그러하다. 작곡가만 표기되어 있는 학교의 교가는 4곡이었고, 작사자, 작곡가 모두 표기되어있지 않은 교가도 4곡으로, 오사까(大阪)조선제4초급학교 교가의 경우 ‘학교창립 50돛에 즈음하여’라는 문구로 특별함을 나타내었다. 특이사항으로는 작곡가 최동욱이 고베(神戸)조선고급학교와 히로시마(廣島)조선중고급학교 교가를 같이 작곡하였다는 점이다.¹³⁾

맞지 않는다.

13) 이 두 학교 교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4/4박자, 부절리듬을 각각 17회, 22회로 많이 사용, 갓춘마디, 점4분음표로 시작, 7음 음계를 사용, 음역을 C'-F"로 사용, 제창 형식이고 정격중지를 사용, 3도막 형식으로 A-B-C의 형태, 24마디, 후렴있는 3개의 유절형식, 빠르기말로 ‘행진곡으로’를 사용한 점이다. 서로 다른 학교의 교가이지만 작곡자가 같아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표 6> 작사·작곡가 분석

작사·작곡가 표기 여부		교가 수	학교명
작사·작곡가 모두 표기 (5곡)	작사·작곡가 개별	2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작사·작곡가 동일	1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집체작(작사)·작곡가	1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작사·작곡·70돛기념작사·편곡 표기	1	도순조선초급학교
작사자만 표기		1	세이방조선중급학교
작곡자만 표기		4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미표기	미표기	3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후가이도초중고,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학교창립50돛기념	1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4. 리듬과 가사의 일치성

리듬은 음악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로 음악의 틀인 구조를 만들며 ‘흐름’이나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리트머스(rhythmos)’에

있다.

서 유래되어 길고 짧은 음표와 쉼표들이 템포(빠르기)와 박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되풀이되는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리듬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인 ‘박’을 알아야 하는데, ‘박’은 음악의 맥박과도 같은 것으로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두고 반복되며 질서를 이룬다. 이러한 ‘박’이 2개·3개·4개 등으로 묶음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2박자·3박자·4박자 등의 박자를 형성한다. 박자는 다시 센박과 여린박의 규칙적인 강세를 이루는데, 2박자는 강약, 3박자는 강약약, 4박자는 강약중강약이 된다. 리듬에서 오는 규칙적 쉼여림의 맥박이 가사의 억양과 어우러졌을 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일치성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가사는 노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언어로 나타낸 것인데, 가사의 내용에 따라 리듬의 사용도 달라진다. 힘차고 씩씩한 느낌의 가사에는 민음표 보다 부점이나 당김음 등의 리듬이 어울리고¹⁴⁾,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가사에는 민음표의 사용이 어울린다. 그러므로 가사의 내용과 리듬의 형태가 잘 부합되고 있는지도 리듬과 가사의 일치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음표의 개수와 가사의 음절수가 잘 맞아떨어지는지의 여부도 잘 살펴보아야 할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리듬의 맥박과 가사의 억양이 잘 어울리는 교가는 5개로 갖춘마디를 사용한 경우였고, 못갖춘마디를 사용한 9개는 박의 강세에 가사의 강조되지 않은 음절이 오게 되면서 부조화를 이루었고 가사의 전달력도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도교조선제9초급학교 교가 가사 ‘우리의’ 경우 ‘우리’는 강조되는 음절이고 ‘의’는 강조되지 않는 음절인데 박자의 강박에 ‘의’ 음절이 위치

14)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점리듬이나 당김음 등을 사용하여 교가 속 등장하는 가사인 ‘통일조선’, ‘수령님’, ‘영광찬 조국’, ‘원수들과 싸워 이긴’, ‘수령님의 아들 딸된’, ‘붉은’, ‘위황차계’, ‘사회주의 조국’, ‘끓는 피’, ‘조국 영예’, ‘무쇠’, ‘붉은 심장’, ‘함홍색 깃발’, ‘애국렬사’ 등을 강조하였다.

하게 되면서 불일치를 나타내게 된다.



<그림 1>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교가

교또(京都)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의 경우도 가사 ‘불보다도’에서 ‘불’이 강조되는 음절이고 ‘보다도’는 강조되지 않는 음절인데, 박자의 강박에는 ‘다’음절이 위치하여 리듬과 가사의 강세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림 2> 교또조선중고급학교 교가

또한, 아이찌(愛知)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의 경우는 못갓춘마디의 어린내기 사용으로 가사의 전달력이 약해져 있는데, ‘자유로운/ 세대에/ 활개쳐갈/ 우리들/ 배움의/ 길에서/ 수령앞에/ 다지자’라는 가사가 리듬에 의해 ‘자유/ 로운세/ 대에활개/ 쳐갈우리/ 들배/ 음의길/ 에서수령/ 앞에다지/ 자’로 전달되게 하였다.

두 번째, 가사의 내용과 리듬의 유형이 일치하는지에 관한 분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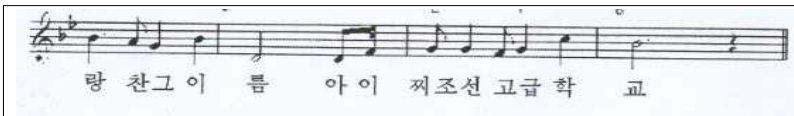
<표 7> 리듬의 맥박과 가사의 억양 일치여부 분석

리듬의 맥박과 가사의 억양	교가 수	학교명
일치하는 경우	5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홋카이도초중고,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조선대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불일치하는 경우	9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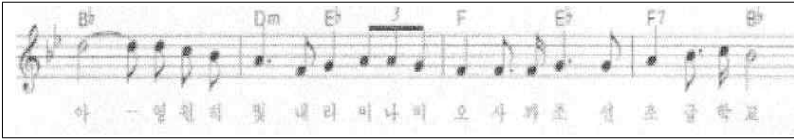
12개 학교 교가들이 씩씩하고 힘찬 내용에 맞게 부점 리듬과 당김음을 사용하여 가사의 내용과 리듬의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홋카이도초중고 교가나 나고야(名古屋)조선초급학교 교가의 경우에는 민음표인 ♩ (8분음표) 위주의 리듬을 많이 사용하여 씩씩한 느낌보다는 서정적인 느낌을 주어 위상이 넘치는 교가의 가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교가들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교명을 넣어 학교의 이름에 부점, 당김음, 셋잇단음표, 16분음표의 연속사용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림 3> 도순조선초급학교 교가 - 부점 사용의 예



<그림 4>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 - 당김음 사용의 예



<그림 5>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교가-셋잇단음표 사용의 예

특히 흑가이도초중고 교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 (8분음표)를 주로 사용하여 서정적 느낌을 주었지만 교명인 ‘흑가이도 초중고’의 ‘가이’에 ♪ (16분음표)를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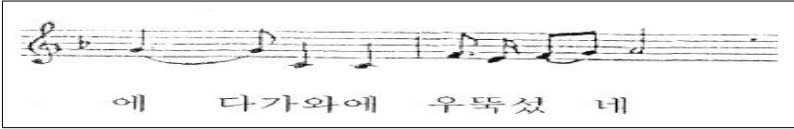
<그림 6> 흑가이도초중고 교가-16분음표 연속사용의 예

<표 8> 가사내용과 리듬의 일치여부 분석

가사내용과 리듬	교가 수	학교명
일치	12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오사카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미나미오사카조선초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불일치	2	흑가이도초중고,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세 번째, 음표의 수와 가사의 음절수 일치에 관해서는 8개 학교 교가에서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6개 학교 교가는 불일치를 나타냈다. 불일

치하는 6개 학교 교가는 다시 음표의 수보다 가사의 음절수가 많은 경우와 음절수에 비해 음표수가 많은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그림 7> 도쿄조선 제2초급학교 교가-음표의 수보다 가사의 음절수가 더 많은 경우



<그림 8>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음절수에 비해 음표수가 많은 경우

<표 9> 표의 수와 가사의 음절수 일치여부 분석

음표의 수와 가사의 음절수	교가수	학교명
일치	8	혹가이도초중고,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교토조선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오사까조선제4초급학교, 도쿄조선제4초중급학교, 도쿄조선제9초급학교
불일치	6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도순조선초급학교, 히로시마조선중고급학교, 나고야조선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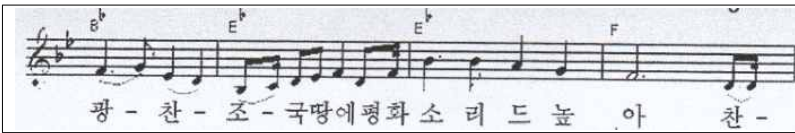
일본 조선학교 교가에서는 악보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음표의 종류를 박자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이다. 도교조선제9급학교 교가가 이러한 경우로, 둘째 단 둘째 마디에 2(2분음표) 대신에 4(4분음표)가 사용되었고, 셋째 단 둘째 마디에는 2(점2분음표) 대신에 4(점4분음표)가, 셋째 단 셋째 마디에는 2(2분음표) 대신에 4(4분음표)가 사용되었는데 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아래는 도교조선제9급학교 교가이다.



<그림 9> 도교조선제9급학교 교가

다음으로, 가사에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가사의 음절수와 음표가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로, ‘-’의 사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음표의 수보다 가사의 음절수가 적을 때 ‘-’를 사용하여 어느 음까지 그 음절의 가사를 부를 것인지 표기해야한다. 이를 위해 가사의 표기에 있어서 보통은 멜로디 선을 밑에 1절·2절·3절 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일본 조선학교 교가 14개 중 11개는 멜로디 선을 밑에 1절의 가사만 표기하고 나머지 절의 가사들은 악보의 우측이나 하단에 따로 글자로만 표기하여 1절 가사는 음절수와 음표 수가 ‘-’ 표시 사용으로 명확히 표기된 데 반해, 글자로만 표기된 가사에서는 ‘-’ 표기가 전혀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1절 가사의 음절수와 다른 절의 가사 음절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음표의 수가 4개이고 가사 음절의 수도 4글자인 경우 1절은 한 음당 한 글자씩 맞춰서 부르는데 2절에서 3음절의 가사로 바뀌면 어느 음절을 2개의 음표로 끌어

서 불러야 하는지 불명확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이다.



<그림 10>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교가

IV. 맺음말

일본의 조선학교는 1945년 패망한 일본에서 1세대 재일동포들이 후세들의 민족교육을 위해 세워진 ‘국어강습소’를 계승한 해외 한민족학교이다. 이 조선학교는 한때 일본 여러 지역에서 수백 개의 학교가 운영되었지만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금은 60여 개만이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일본 내 조선학교가 급감한 것은 출생률 감소라는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특히 최근의 학생 수 감소는 조선학교가 교육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조선학교는 민족교육을 하여 일본에 사는 후세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의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내·외에서 일본 조선학교를 포함한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 한민족학교 교가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이고, 일본 조선학교 교가나 구소련지역의 고려인학교 교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 상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기존의 해외 한민족

학교 교가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 교가 가사에 집중되어있고, 가사 내용 이외의 교가의 형태와 구조 분석이나 교가에 나타난 음악적 요소 분석 등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해외 한민족학교인 일본 조선학교의 교가를 대상으로 음악적 요소 등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가요형식에는 세도막형식이 총 11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마디수는 24마디의 구조가 11개로 가장 많았다. 가사형식으로는 유절형식이 13개로 대부분 절이 있는 교가의 형식을 선호하였다. 빠르기말을 표기한 학교의 교가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가는 각각 7개씩으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빠르기말을 사용한 학교들의 대부분은 행진곡 풍으로, 자랑차게, 씩씩하게 등의 교가와 어울리는 부사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은 일본 조선학교 교가의 경쾌한 성격과 교가 가사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일본 조선학교 교가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교가에 나오는 북한과 수령, 태양 등의 개인숭배사상, 민족에 대한 자부심, 통일에 대한 희망 등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부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작사, 작곡가는 10개 교가에서 표기되어 있었고, 4개의 교가는 미표기로 되어있었다. 리듬과 가사의 조화는 불일치가 9개로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처음 시작부터, 또는 중간에 못갖춘마디로 바뀌면서 박자의 셈여림과 가사의 억양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가사의 전달력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음표와 음절수가 일치하는 학교의 교가는 8개였는데 불일치하는 경우는 음표의 수보다 가사의 음절수가 더 많거나 적은 경우였다. 악보의 오류로는 잘못된 음표의 사용으로 박의 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가사의 기보에서 11개 학교의 교가가 ‘-’표시를 사용하지 않아 음표와 음절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사를 붙일 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도 12개 학교의 교가에서 숨표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고, 쉼표를 사용하기 보다는 음표로 마디의 박 수를 채워 답답한 느

김을 주는 형태의 교가도 12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한민족은 원래부터 후세의 교육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를 떠나 타국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다음 세대의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훨씬 많은 민족학교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일본의 조선학교도 이 중 하나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갖가지 원인으로 해외 한민족학교는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으며, 민족적 특색 역시 현지 사회에 동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의 한민족학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해외 한민족학교에 대한 연구는 민족학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작업인 동시에 앞으로 생존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해외 한민족학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요어: 재일동포, 조선학교, 교가, 음악 형식, 가사와 리듬

<참고문헌>

- 길태숙(2008).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신홍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75-101.
- 김리화(2015). 故郷としての朝鮮學校—朝鮮學校の音楽教育に關する—考察. *在日朝鮮人史研究* 45, 137-156.
- 배지원·조경희 엮음(2017).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 도서출판 선인.
- 안병삼(2011).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367-394.
- 안병삼(2012). 中國 黑龍江省 朝鮮族學校 校歌 研究. *인문과학연구* 35, 527-557.
- 안병삼(2013). 중국 요녕성 조선족학교 교가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3, 71-108.
- 안병삼(2014). 中國 朝鮮族學校 校歌에 나타난 한민족공동체의식. *민족문화논총*

57. 109-134.

안병삼·임영언(2018). 해외 한민족학교의 교가 비교 연구—중국 조선족학교와 일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4. 153-175.

양종모(2019).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의 민족 음악교육 연구. *음악교육연구* 48.4. 181-205.

오자와 유사쿠 지음. 이충호 옮김(1999). *제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도서출판 해안.

임영언·김태영(2017). 제일코리아 민족학교의 성장요인과 학교문화로서 교가 고찰. *일본문화학보* 73. 213-230.

임영언·김태영(2018). 제일조선학교에서 북송운동의 전과과정 고찰: ‘불꽃’ 잡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문화연구* 11.1. 1-23.

정진성(2017). 제일동포 민족학교. *일본비평* 16. 208-241.

朴三石(2011). *教育を受ける権利と朝鮮學校*. 日本評論社.

小澤有作(1973). *在日朝鮮人教育論*. 亞紀書房.

http://www.korean.net/portal/info/pg_knt_major_area.do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AD1OHSV>

Name	Kim, Sujin
Belong	Dpt. of Music, Sahmyook University
E-mail	ksj818@syu.ac.kr

Name	An, Byungsam
Belong	Dpt. of Chinese Language, Sahmyook University
E-mail	bayusansan@syu.ac.kr

투고일	2020/05/19	심사일	2020/05/26
게재확정일	2020/06/09		